

# 화이트헤드의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문창옥(광운대 겸임교수)

**【주제분류】** 현대철학, 형이상학, 우주론

**【주요어】** 화이트헤드, 존재, 생성, 구성, 해체, 결단

**【요약문】** 화이트헤드는 근대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그 자리에 합리주의적 체계를 구축한 철학자로 통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해체와 구성은 두 가지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그는 구성을 통해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형이상학 체계에서는 해체의 요인이 그 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형이상학적 도식을 통해 드러낸 존재의 실상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체계의 확정성을 거부하는 비합리적 성격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의 체계는 그 자체 내에 자기 파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독단주의에 반대하여 합리주의적 체계의 한계와 우연성을 말하면서도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존재의 비합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체계가 기술하고 있는 존재의 이런 비합리적 측면은 근대적 전제들에 대한 해체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의 체계 자체까지도 해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체계에서 구성과 해체를 대비시켜 별개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나 해체적 경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성의 측면을 적당히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처사는 그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해체적 경향성은 체계 속에서, 체계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 I.

일반적으로 화이트헤드(A. N. Whitehead)는 합리주의를 실천한 철학자로 간주된다. 사실 그에게는 “본질적으로 일반 이론을 예증하고 있는 사례로서 나타낼 수 없는 요소란 경험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합리주의의 희망(PR 42)<sup>1)</sup>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물들의 본성 구석구석까지 이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궁극적인 내적 신념”(AI 137)<sup>2)</sup>이 있었다. 합리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이런 그의 낙관적 태도는 형이상학적 사변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근대 철학의 근본 관념들을 비판하는 동기가 된다. 그가 보기에 근대 철학은 불완전한 합리주의에 만족하였다.<sup>3)</sup> 근대 철학은 비판

---

1) 이 희망은 그의 철학의 전제가 아니라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이었다. 그는 이런 이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합리주의자가 된다고 말한다(PR 42). 그런데 그가 합리주의를 하나의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합리주의의 한계를 이미 시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PR은 *Process and Reality*(D. W. Griffin and D. A. Sherburne ed. 1978)의 약칭).

2) AI는 *Adventures of Ideas*(1933)의 약칭

3) 콕(J. B. Cobb)은 화이트헤드가 근대를 반합리주의 시대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근대는 대개 이성의 시대로 간주된다. 그것은 신앙의 시대 내지 심지어 미신의 시대로 간주되는 중세와 대비된다. 탈중세의 분위기 속에서 흄과 칸트에 의해 시작된 이성비판은 새로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초가 되었다. 화이트헤드는 근대 사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혀 다른 이해에 도달한다. 그는 근대성의 기원이 근본적으로 합리적 사유에서 역사적 사유로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한다. 근대 정신은 사물과 사건의 궁극적 근거를 추적하지 않고 보다 제한된 영역에서의 이해에 만족하고 사물의 목적이나 깊은 본성보다는 사물들의 원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콕은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the Modern World*)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종교개혁과 과학적 운동은 후기 르네상스의 지배적인 지적 운동이었던 역사적 반역의 두 측면이다. 기독교가 그 기원에 호소하였다는 것과 프란시스 베이컨이 목적인을 도외시키고 작용인에 호소하였다는 것은 한 가지 사유 운동의 두 측면이다. ... 이러한 역사적 반역을 이성에 대한 호소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반대로 그

적 반성을 거치지 않은 전통의 근본 관념들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받아들여 전제하였다. 신의 궁극성, 자아의 동일성, 물질의 자존성 등은 근대 철학이 전제하고 있던 전통 실체 철학의 유산들이다. 근대 철학은 이런 관념들의 그늘 아래 안주하여 유희한 결과 근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양산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20세기 철학으로 하여금 사변 이성을 폐쇄하고 형이상학을 무의미한 언어놀이로 폐기처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20세기 철학은 공공연히 이 난제들을 외면하였다. 화이트헤드는 이 난제들을 철학의 과제로 끌어안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변 이성을 회복하여 활용함으로써 근대 사유의 전제를 이루고 있던 이들 근본 관념을 철저히 비판하고 해체하는 한편 새로운 범주와 개념들을 마련한다. 그의 형이상학적 우주론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마련된 범주와 개념들의 정합적 체계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근대 우주론의 전제들에 대한 비판과 해체, 그리고 새로운 범주와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우주론의 재구성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현상의 구제라는 전통 형이상학의 과제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의 우주론은 단순한 자연철학적 의미의 현상 구제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이 체계를 통해,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경험, 즉 일상의 감각 경험뿐만 아니라 과학, 종교, 예술 등 모든 영역, 모든 층위에서의 내적, 외적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PR 3-4/49-51). 이런 의미에서 그의 형이상학적 우주론 체계는 포괄적인 해석학적 도구로 기능한다.

그리핀(D. R. Griffin)은 화이트헤드 철학이 갖고 있는 이런 체계 구성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의 철학을 “구성적” 또는 “수정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특징짓고 있다.<sup>4)</sup> 여기서 구성적 내지 수정적이라는 표현은 니체와

---

것은 철두철미 반주지주의적 운동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고찰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중세 사유의 완고한 합리성에 대한 반동에 기초하고 있었다.”(J. Cobb, “Alfred North Whitehead, D.R. Griffin,” *et al*, *Founders of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lbany: SUNY Press, 1993. pp.165-95).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해체 또는 배제 일변도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대비시키기 위한 용어이다.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은 반(反)세계관을 통해 근대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것은 신, 자아, 목적, 의미, 실재세계, 대응으로서의 진리와 같은 세계관의 필수요소들을 해체 또는 배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포스트모던 사유는 상대주의를 낳고 심지어 허무주의까지 낳는다. 이에 반해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계관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대의 전제와 개념들을 수정하여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구성함으로써 근대의 세계관을 극복하려 한다.

페드라자(L. G. Pedraja)<sup>5)</sup>는 그리핀의 이러한 해석이 그리핀 자신이 일부 포스트모던의 태도에 내재해 있다고 믿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항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페드라자는, 이처럼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과 대비시켜 이해하면서 그 구성적 측면에 주목하는 처사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해체적 경향성, 특히 데리다(J. Derrida)와의 유사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와 데리다는 공히 “추상적인 절대 진리를 의심하면서 존재, 영속성, 현전, 공간, 분리독립, 개별적 실체를 우위에 놓는 근대적 관점으로부터 생성, 변화, 시간, 상호연관, 유동을 통합하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서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화이트헤드)의 독창적인 해석학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입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의 형이상학에 주어진 우선성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강조는 필자의 것임).

필자는 이 글에서 이들의 해석을 추적하여 비교 평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논의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해체와 구성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해체와 구성은 두 가지

4) D. R. Griffin, *et al*, *Founders of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lbany: SUNY Press), 1993. viii.

5) Luis G. Pedraja, “Whitehead, Deconstruction, and Postmodernism,” *Process Studies*, Vol. 28(1999) pp.68-84.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그는 구성을 통해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형이상학 체계에서는 해체의 요인이 그 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형이상학적 도식을 통해 드러낸 존재의 실상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체계의 확정성을 거부하는 비합리적 성격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의 체계는 그 자체 내에 자기 파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독단주의에 대하여 합리적 체계의 한계와 우연성을 말하면서도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존재의 비합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체계가 기술하고 있는 존재의 이런 비합리적 측면은 근대적 전제들에 대한 해체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체계 자체까지도 해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평가하면서 구성과 해체를 대비시켜 별개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나 해체적 경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성의 측면을 적당히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처사는 그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해체적 경향성은 체계 속에서, 체계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화이트헤드 우주론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합리주의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는 비합리적 요인을 부각시켜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체계가 살아 숨쉬는 것은 바로 이런 비합리적 요인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의 체계 내부에 천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천착 없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외면적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들을 통해 성급하게 그 해체적 경향성을 읽어내고자 할 경우 화이트헤드 철학에 들어있는 구성과 해체의 진정한 관계를 간과하고 나아가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본 이념에 제대로 다가서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필자가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지니고 있는 해체적 경향성에 대한 페드라자의 논의가 일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해체적 경향성을 읽어내고 있는 특성들, 즉 생성, 변화, 시간, 상호연관, 유동 등은 화이트헤드 철학의 지극히 표피적인 특성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특성들은 그 자체로는 해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해체적 특성으로 부각되는 것은

보다 세밀한 분석을 거치고 닳을 때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석될 때 그것들은 일차적으로 체계 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면서 해명되는 구성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들이 어떻게 구성에 참여하여 해명되고 있는지를 먼저 간단히 고찰하고(II), 나아가 이 구성 속에서 다시 이들이 어떻게 해체적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지를 추적해 볼 것이다(III). 이는 궁극적으로 화이트헤드 철학이 머금고 있는 비합리주의적 측면을 밝히는 작업이 된다.<sup>6)</sup>

## II.

생성, 변화, 시간, 상호연관, 유동 등은 화이트헤드가 구성적 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존재 일반의 특성들이다. 그의 체계는 다양한 범주들의 연관을 통해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한, 이들 특성들은 합리적 구성의 일부가 된다. 생성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변화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상호연관이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사태인가? 유동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변들로 이루어진 정합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일련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 즉 '참된 존재'(res vera)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상상적 유비적 사유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추구한다.

- 
- 6) 엄밀히 말하자면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라는 개념 쌍은 구성과 해체라는 개념 쌍과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전자가 보다 큰 함축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요체가 각기 '구성'과 '해체'에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합리주의라는 말은 어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세계에 대한 구성적 해명을 시도하는 경향성을 일컬으며 비합리주의는 객관적 근거 자체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구성적 논의'의 허구성을 폭로·해체하는 경향성을 지칭한다.

이 사유에서 그가 일차적 반성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인간의 경험 그 자체이다. 인간의 경험 사건은 자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 그는 이 사건의 일반적 구조로부터 모든 존재 사건의 내적 구조를 유비적으로 추론해낸다.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주변의 타자 전체에 의존하여 존립한다. 환경을 떠난 고립된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존재 역시 그 주변의 타자 전체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그 주변의 존재와 무관한 자존적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것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경우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의 경험은 자기 이외의 존재 전체, 요컨대 여건(data)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참된 존재’로 구상하여 우주론의 중심에 놓는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는 이런 자기화 과정에 있는 단위 사건으로서의 존재이다. 그것은 여건을 자기화하는 가운데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존재, 즉 자기 생성의 과정으로서의 존재이다. 그래서 “있음”(being)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생성”(becoming)이라는 과정의 원리; principle of process, PR 23)가 성립한다. 참된 존재는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즉 생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경험의 과정으로서의 현실적 존재는 과거-저곳의 것을 현재 이곳의 경험을 통해 현실화한다. 지금-이곳이라는 시공간 폭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절대 입각점이다. 그것은 또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즉 쪼갤 경우 그 존재의 현실적 동일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원자적인 것이다. 그것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의 가장 구체적인 단위 사건이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생성의 일차적 의미는 이런 미시적 과정으로서의 생성이다. 화이트헤드의 체계 내적 용어로 하자면 이는 현실적 존재의 합생(concrescence)이다.

현실적 존재의 합생은 단위 시공간의 실현(actualization)을 동반한다. 물리적 시공간은 이런 4차원의 시공간적 입방체인 단위 사건들의 계기와 병치에서 비로소 현실화한다. 따라서 물리적 시공간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의존하는 파생적 사태이다. 현실적 존재는 시공간 축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하기에 변화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생성하고 소멸할 뿐이다. 그것은 절대 동일자로서 변화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변화는 시공간적으로 이웃하는 현실적 존재들간의 차이이다. 이런 차이는 현실적 존재가 과거의 것에서 일탈하면서 빚어진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의 것에서 부분적으로 일탈하는 가운데 우주의 창조적 변이를 실현한다. 우주의 이런 변이가 바로 창조적 전진(creative advance)의 핵이다. 따라서 현실적 존재들의 내면적 일탈로 말미암아 거시적 세계는 유동하게 된다. 여기에 거시적 과정의 생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 존재의 이런 일탈은 무제약적인 것일 수 없다. 임의의 한 현실적 존재를 지금의 그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타자 전체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과거에 대한 순응적 느낌(conformal feeling)과 미래에 대한 예기적 느낌(anticipatory feeling)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이런 느낌들이 현실적 존재들간의 상호연관을 가져온다. 우주 전체는 이런 상호연관의 그물이다. 우주 속에 고립된 자존하는 존재란 있을 수 없다. 현실적인 것은 무엇이나 이 그물에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현실적 존재들간의 이런 순응과 예기의 역사는 우주 질서의 바탕이 된다. 현실적 존재는 실현된 질서의 그물 속에서 탄생하여 이를 계승하여 반복하고 이를 다시 후속하는 존재에 넘겨준다. 그들이 순응하는 한, 거시적 세계의 질서에 기여한다. 이런 질서에 힘입어 한시적 동일성을 구현하는 것이 다양한 층위의 거시적 존재들, 곧 '사회'(society)이다. 이들은 한시적 동일성을 향유하는 가운데 우주의 질서에 기여하고 또 이 질서에 힘입어 동일성을 향유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구성적 논의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는 한시적 삶을 사는 역사적 존재이다. 그것은 시간 축을 따라 성장과 쇠퇴를 겪는다. 화이트헤드의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다. 우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 즉 역사적 존재이다. 영속 불변하는 것은 모두 추상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존재는 역사적 존재로서 시간 속에 있다. 존재의 이런 역사성은 전체로부터 추상될 수 있는 무편향의 공리적 중심(an



unbiased, axiomatic center)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페드라자가 화이트헤드에 대한 그리핀의 구성주의적 해석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이처럼 무편향의 공리적 중심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페드라자는 그리핀의 해석이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중심성”(centeredness)을 구제하려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페드라자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외적 실재에 대응하는 검증 가능한 전제들의 체계가 아니라 주어진 문맥에서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평가되는 점진적 실험적 해석 도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퍼어스(C. S. Peirce)와 제임스(W. James)에 힘입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퍼어스와 달리, 그는 해석체계가 그런 궁극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PR 9).

나아가 페드라자는 이런 화이트헤드 철학의 탈중심성에 주목함으로써 화이트헤드를 데리다와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와 데리다는 근대성의 여러 전제들을 파괴하고 언어와 철학의 한계를 역설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보편적 진리를 내세우는 추상적 사유와 특수한 문맥적 전망과 관점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는 데서 일치한다. 화이트헤드에게서 “실재의 상호연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은 그 실재를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기술하는 고정된 의미를 허락치 않는다.” 데리다에게 있어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언어의 상호연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이다.<sup>7)</sup> 이로부터 페드라자는 우리가 더 이상 “포스트모던의 비판

7) 페드라자의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데리다의 철학에는 시간성이 기호의 반복가능성에서뿐만 아니라 차연(différance)의 근본적 타자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리다에게 있어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존재의 현전에 현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과 관계 맺고, 그럼으로써 그 자신 내에 과거의 요소들의 징표를 간직하며, —이런 흔적은 과거의 것에 못지 않게 미래의 것과도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미래의 요소들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을 이미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만, 현전하지 않는 것과의 바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 현재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Margin of Philosophy

과 근대성의 해체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공헌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한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포스트모던적 철학자들의 잠재적 공헌자로 그리고 이들의 선구자로 화이트헤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페드라자의 이런 결론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 철학에 대한 페드라자의 이런 결론은 불충분한 표피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리핀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화이트헤드 철학의 구성적 특성이 모호하게 평가되어 있다. 페드라자의 해석은 화이트헤드 철학이 불완전한 합리적 체계를 유동하는 실재, 따라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그런 실재와 마주 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sup>8)</sup> 이것은 결코

---

13). 그래서 그는 현전의 현재를, 그가 결국 차연이라 부르는 ‘파지(retention)와 예지(protention)’의 흔적들의 환원 불가능한 종합이라고 이해한다. 페드라자는 데리다가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전의 시간화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현실적 존재의 합생(concrescence)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고 이해한다. 양자는 모두 불가피하게 상호 연관되고 시간화되며 과거(주어진 것)와 미래(가능태)와의 관계와 차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리다에게 있어 차연이라는 관념은 합리성의 가능 근거가 되는 “구성적이고 생산적이고 원초적인 작인”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차연은 언어와 이성의 원초적인 근거로 간주된다.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차연은 말할 수 있는 것의 근거로 기능하는 생산적 활동 또는 운동이다. 이와 유사하게 화이트헤드는 창조성(creativity)을 이성 그 자체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이접적인 다자를 연결적인 일자로 통일하는 원초적인 창조적 활동성 내지 원리로 이해한다. 이때 일자는 다시 다자 가운데 하나가 된다(PR 21). 결국 이런 일련의 비교분석을 통해 페드라자는 데리다의 ‘의미작용’과 ‘차연’이 화이트헤드의 ‘합생’ 및 ‘창조성’과 현저한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고 결론하고 있다.

- 8) 화이트헤드의 체계를 순수한 가설적 체계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의 철학을 이런 구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논의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필자는 화이트헤드의 체계 내에 들어 있는 비합리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체계가 하나의 우주론적 가설이라 하더라도 이 가설 속에는 자기 파괴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가설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페드라자의 해석처럼 실재가 합리적 체계에 포착될 수 없는 까닭이 단순히 실재가 생성하고 변화하고 유동한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런 실재를 앞에 두고 화이트헤드가 체계를 구성하려 했다는 것

사실이 아니다. 그의 체계는 유동하는 실재를 끌어안고 있다. 유동하는 실재는 그의 체계를 통해 그 분석적, 기술적 의미를 얻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유동하는 실재와 의미 있게 만나는 것은 그의 체계 안에서이다.<sup>9)</sup> 페드라자가 화이트헤드 철학의 해체적 경향성을 읽어내는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생성, 역동성, 상호연관성, 유동성 등의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체계 밖에서 걸돌고 있지 않다. 물론 일상적 의미에서 이들은 화이트헤드 철학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화이트헤드의 체계를 밖에서 바라보고 단순히 그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화이트헤드의 체계 내로 들어갈 때 이들 개념들은 세부적으로 정교한 범주들을 통해 구성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명백히 구성적으로 해명되고 있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그의 체계 내에

---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는 이런 특성들이 적어도 상당 부분 체계적 기술로 해명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체계 구성을 시도했던 것이며, 다만 이 체계 속에 그런 실재가 남김 없이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9) 일견 텍스트 밖을 인정하지 않는 데리다와 달리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관계, 대비, 차이의 상호작용은 언어에 앞서 모든 경험의 기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페드라자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구도는 데리다와 단순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데리다와 달리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서로 무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층위가 다른 두 세계와 두 언어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유동하는 구체적 실재와 이를 그려내고 있는 체계 내적인 범주적 언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피적인 감각 경험의 세계와 이를 포착하는 일상 언어(전통 철학의 범주를 포함한다)가 있다. 여기서 범주적 언어는 실재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언어, 따라서 실재를 담아내고 있는 언어이다. 이 언어는 일상언어와 감각 경험을 온전히 설명해준다. 그래서 일상언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이트헤드에게서도 범주적 언어로 기술된 세계, 즉 텍스트의 세계 밖에 없는 셈이 된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유동성이 분석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그의 우주론 체계 안에서이다. 이 체계의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 있게 만나지 못한다. 영원불변하는 것도 유동하는 것도.

서 구성이나 해체와 관련하여 볼 경우 이들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다. 그렇기에 또한 이들 개념들만으로 우리는 성급하게 화이트헤드 철학의 해체적 경향성이나 비합리성을 말할 수 없다. 페드라자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것들은 단순히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해체의 메커니즘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은 화이트헤드에게 체계 구성의 동기를 제공하고 또 그의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해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체의 요인, 즉 합리주의적 희망에 도전하는 비합리적 요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념의 체계 내적 기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III.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합리주의의 희망에 도전하는 체계 내적인 비합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화이트헤드 철학과 관련하여 합리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화이트헤드가 전통적 의미의 존재론자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이트헤드는 무가 아니고 존재(생성)인가라는 물음은 묻지 않는다. 그는 이 물음을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 없는 물음, 곧 사이비 물음으로 간주한다.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출발점, 즉 합리화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지평에서 볼 때,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합리주의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 그 자체는, 이론화하기 위한 소재가 될 ‘주어진’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PR 42).<sup>10)</sup>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론적 물음과 관련된

10) 화이트헤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합리주의적 사고에 있어서 ‘소여성’(givenness)의 관념은 문제의 단순한 여건을 넘어서는 관계를 함의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결단’과 관계된다. 이 결단에 의해, ‘주어진’ 것은 그 계기에 있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사물에 있어 이러한 ‘소여성’의 요소는 한계를 끌어들이는 어떤 활동성을 함의하

한계는 화이트헤드가 엄두에 두고 있는 합리주의의 한계와는 무관하다. 그의 철학은 이를 처음부터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이 문제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성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어떻게 생성에 분석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화이트헤드는 “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기술에서 합리주의에 저항하는 요인을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범주적 기술에 걸려들지 않는 비합리적 요인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비범주적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되는 사물과 경험하는 사물의 집요한 특수성”(PR 43)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런 특수성을 체계 내적인 용어로 번역하여 분석하려면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의 합성 내부를 기술하고 있는 현장으로 따라 들어가야 한다.

현실적 존재는 그것에 주어진 과거의 세계 전체를 여건으로 하여, 따라서 그것의 인과적 제약 하에 탄생하고 이렇게 인과적으로 주어진 과거의

---

고 있다”(PR 42-43). 일견 이 진술은 위 본문의 인용부분과 연관시켜 이해할 경우 합리주의의 한계가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 구성자가 갖는 입각점이나 선입견에 의해 소여성의 요소가 결단, 즉 취사선택되기 때문에 순수 소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체계가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인식론적 사태를 포함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사태가 범주체계로 정교하게 번역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체계는 이런 상대주의적 사태까지 설명함으로써 상대주의를 넘어선다. 이 점은 위에 인용된 첫 구절의 ‘합리주의적 사고에서’라는 표현에 시사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상대주의적 시각의 존재론적 근거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런 시각까지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흄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이상학적 기술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형이상학적 기술이 ‘실천’을 포함하지 못할 때 그 형이상학은 불충분한 것이고 수정을 요하는 것이 된다”(PR 13). 화이트헤드에게서 인식작용 그 자체는 실천에 속한다. 그것은 선택과 결단을 포함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여에 대한 인식의 과정 전체가 형이상학적 체계 내에서 범주적으로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합리주의의 한계는 상대주의와 무관하다.

느낌들을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하면서 완결된다. 그런데 이렇게 ‘완결된 현실적 존재’는 그 합생의 초기 위상에서 그 현실적 존재가 품고 있던 ‘목적인’(final cause)이다. 이 목적인의 느낌은 그 현실적 존재를 탄생시킨 여건들 가운데 가장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신에 대한 물리적 느낌(physical feeling)에서 파생되는 개념적 느낌(conceptual feeling)이다. 화이트헤드의 느낌에 관한 논의 전체를 배경으로 할 때, 이 목적의 느낌은 신에 대한 물리적 느낌에서 파생되는 개념적 느낌을 술어적 느낌(predicative feeling)으로 하고, 그 주체 자신의 시공간적 입각점(locus)을 논리적 주어로 하는 일종의 명제적 느낌(propositional feeling)이다.<sup>11)</sup> 합생의 과정은 이 명제적 느낌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다른 느낌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다. 이들 느낌들은 주체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소재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생의 과정은 목적론적 과정이요, 따라서 자율적 과정이다. 주체에 주어지는 모든 느낌들, 정확히 말해 이들 후자의 느낌의 주체적 형식들(subjective forms)은 이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서 소재가 되는 느낌들은 긍정과 부정,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등의 형식으로 배제되거나 강조 또는 약화된다. 새로운 주체는 이로써 특수한 것, 적어도 주어진 것(과거의 현실 세계 전체)과는 다른 무엇인가로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체의 완결은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위한 여건, 즉 객체가 된다.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의 합생에 대한 범주적 기술을 통해 새로움의 출현, 즉 창조적 전진을 설명하는 기본 도식이다. 유동성, 역동성 등과 같은 표현의 의미는 여기서 한층 심화되어 개체 존재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합생이 목적론적 과정으로 기술되는 가운데 개체 존재의 자율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존재는 자신의 주체적 지향을 준거로 여

11) 신에게서 파생되는 이 목적의 느낌 즉 ‘최초의 지향’(initial aim)은, 합생할 존재의 입각점을 논리적 주어로 하고 여기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특성을 술어적 느낌으로 하는 ‘신의 명제적 느낌’에 대한 느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때의 명제적 느낌은 그 입각점과 관련하여 신이 갖고 있는 의도를 반영하며, 새로운 주체는 이 명제적 느낌을 느끼는 가운데 신의 의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에 대한 자신의 느낌들을 평가 통제한다. 이것은 주체적 결단(decision)의 과정이다. 사실 현실적 존재의 느낌들 하나 하나가 모두 결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런 결단은 온전한 의미의 주체적인 자율적 결단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체가 갖는 결단과 선택은 신의 주체적 지향에서 파생되는 최초의 지향에 따르는 것이며, 따라서 예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체의 자율적 결단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르는 수동적 결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자율은 환상이다. 그리고 자율이 모두 이런 것이라면 우주는 예정 조화된 우주일 것이다. 우주의 과정은 합생하는 개체적 존재들의 자기 결정에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신의 주체적 지향에 따르는 수동적인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체의 처지에서 보자면 목적론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전체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작용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최초의 지향'을 통해 구현되는 개체의 특수성은 준거를 갖는 특수성, 합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특수성이다. 그것은 목적인 즉 주체적 지향의 범주로 분석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술에 저항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를 자기 원인자(*causa sui*)로 규정하는 대목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기 원인이란, 합생의 과정이, 느낌들로 이루어진 질적인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 결단을 내림에 있어 그 자신이 그 결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에 내재하는 자유는 이러한 자기 원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PR 88). 그래서 작용인의 요소가 아무리 깊숙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의 피안에 있는 사물의 궁극적 자유”(PR 47)를 구현하는 주체의 최종적 결단이 있다. 이 최종적 결단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원인, 즉 작용인의 고리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자기 창조를 실현하는 결단으로서, 신에게서 파생된 '최초의 주체적 지향을 수정하는 주체의 결단'이다(PR 47). 주체는 신에게서 파생된 주체적 지향 자체를 수정하여 자기 나름의 지향을 목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결단이 어떤 범주적 근거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합생하는 존재가 갖는 모든 결단의 느낌, 다른 모든 결단의 주체적 형식들은 주체적 지향에 의해 통제 조정된다. 그런데 주체적 지향

나의 느낌이며, 이에 대한 수정의 느낌 또한 그 주체적 지향을 배제 거부하거나 강화 내지 약화시키는 주체적 형식을 갖는 하나의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체적 지향을 수정하여 결단하는 느낌의 주체적 형식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화이트헤드의 체계는 여기서 분석을 멈추고 있다. 이는 주체적 지향을 수정하는 데서 정점을 이루는 결단이 더 이상 범주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존재 내면의 비합리적 사태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 존재가 자기 원인으로 규정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그것은 현실적 존재를 진정한 의미의 자기 원인자, 즉 진정한 의미의 타자 초월적 개체로 만드는 요인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는 새로움을 통해 타자를 초월한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새로움에 의해 신까지도 포함하여 우주를 초월한다”(PR 94, PR 88 참조). 이때의 새로움은 타자로의 환원불가능성,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집요한 특수성”이다. 그것은 그 이유를 댈 수 없는, 즉 범주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비합리적 우연성이다. 궁극적으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우연적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 내재적인 비합리적 우연성이다. 그것은 합리적 구도로 해명될 수 없는 존재의 비합리성이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시대의 우연성과 예측 불가능한 변이를 설명하며, 모든 이론 구성을 제약한다. 그것은 지금에 있어 어떤 독단적인 언명도 근거 없는 것임을 폭로한다.

이렇게 화이트헤드의 합리적 체계 내에는 더 이상 범주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태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주체적 지향의 수정’을 언급할 때 그는 존재의 뿌리에 이런 비합리주의적 요인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화이트헤드는 인간 경험의 내적 구조에 대한 통찰에서 존재 내면의 구조를 유비적으로 추리하였다. 따라서 이런 결단은 존재 해명의 원천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경험 속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순간순간 결단한다. 이들은 물론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 경험을 원초적 모델로 하고 있는 존재 내부에 이런 비합리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열려



있는 현실태들, 즉 인간 존재의 경우... 최종적인 결단은 책임성, 승인이나 반대, 자찬과 자책, 자유, 강조 등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토대가 된다. 경험의 이러한 요소는 단순한 오해로 치부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삶의 전체 색조를 지배한다”(PR 47). 존재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 요인은 체계 밖에서 체계를 위협하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체계가 포착하여 건져 올린 존재의 뿌리이다. 그리고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개체 존재의 이런 비합리적 결단에 힘입어 창조성은 본래적인 의미의 창조성이 된다. 개체 존재의 결단은 화이트헤드가 역설하는 창조적 진진의 본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범주적으로 창조성은 ‘다’ (many)에서 ‘일’(one)로의 과정이다. 그것은 이접적인 다자를 연접적인 일자로 만드는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창조성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원리적인 특성은 수적인 새로움의 출현을 설명한다. 그러나 창조성이 단순히 이런 원리적 형식적 특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양적인 의미의 새로움을 실현시키는 궁극자(the Ultimate)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페트라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데리다의 ‘차연’과 ‘창조성’간의 유사성도 말하기 어렵게 된다.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은 현실적 존재가 자기 창조를 결정하는 그 내적 결단에 뿌리내리고 있음(존재론적 원리: ontological principle)<sup>12)</sup>으로 말미암아 질적인 새로움을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존재는 자기 창조적 결단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질서의 율타

12) 일부 화이트헤드 학자들 가운데는 창조성이 존재론적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Garland, William J.의 “The Ultimacy of Creativity”(Explorations in Whitehead’s Philosophy, eds. L. S. Ford and G. L. Klin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3), 또는 Wilcox, J. R.의 “A Monistic Interpretation of Whitehead’s Creativity”(Process Studies, Fall, 1990)를 참조).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논의가 달라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창조성이 현실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 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성일 수 있으려면 여전히 질적인 새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무엇인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를 거부하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정된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구현하는 존재의 질적 새로움은 신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새로움 때문에 신도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존재를 여건으로 하는 신의 결과적 본성(consequent nature)은 그의 원초적 본성과 위이면서 신 자신의 주체적 지향을 수정하게 된다. 이는 우주 전체의 미래가 달리 구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 전체의 창조적 변이의 뿌리는 주체적 지향을 수정하는, 합생하는 현실적 존재의 결단에 있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헤드는 해체의 요인을 체계 밖에 두고 대결하고 있지 않다. 그는 이를 체계 속에 끌어들여 범주화함으로써 그것에 체계 내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의미를 주고 있는 우주론의 범주체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체계에 도전하는 해체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것이 구성 속에 해체가 내재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또한 화이트헤드는 이런 해체적 자유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사실 그는 이 자유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현실적 존재는 모두 그의 현실적 우주에 대한 그의 상대적인 관점에 의해 ‘주어진’ 최초의 위상에 내재하는 자유를 소유할 뿐이다. 자유, 소여, 가능태는 서로 전제하면서 서로를 제약하고 있는 개념들이다”(PR 133). 과거 세계는 강력한 인과적 힘을 행사한다. 그리고 합생하는 주체가 이런 인과적 힘에 순응하여 과거의 질서를 계승 반복하는 데서 과거와의 연속성, 따라서 안정성이 성립한다. 이것은 비록 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벌어지는 합리적 이론 구성의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합생하는 주체가 이런 인과적 힘으로부터 일탈할 때, 과거를 거부하는 자율을 행사할 때 창조적 변이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런 자율의 핵심에 합리적 체계에 저항하는 존재의 비합리성이 있다. 그것은 화이트헤드의 체계를 포함한 모든 이론적 구성을 배반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연은 결코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넘어서 간다”(PR 289).

IV.

화이트헤드는 합리주의를 ‘희망’으로 표현할 때 합리주의적 체계가 그의 철학의 목표임을 시사하였다. 그는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전통의 관념적 제약들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철학의 경계를 타파하고 철학이 예술적 상상적 작업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오히려 그는 생산적인 사유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 시적인 통찰력과 상상이 행하는 역할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철학의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전제들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조치는 그런 전제들의 한계 너머로 “방황”하려는 시도를 가로막는다(AI 294). 그런 한계 의식은 철학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표현을 불필요한 신조어라 하여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는 이런 비난을 도외시하고 존재 내면에 대한 신비주의적 직관을 합리화하기(MT 174)<sup>13)</sup> 위해 새로운 범주와 관념들을 과감히 끌어들인다. 이런 점에서 그의 체계 구성은 반(反)형이상학의 시대였던 20세기에 있어 정녕 ‘모험’이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절대적인 형이상학적 체계의 구축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가 구축한 포괄적인 해석 도식(comprehensive hermeneutical scheme)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해석될 수 있는 일반관념들의 정합적이고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PR 3, AI 222)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는 ‘왜 존재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묻지 않는다. 그는 존재론적 지평에서 합리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해석 도식은 포괄적이고 초월적인 이성중심적 존재론이 아니라 경험의 메타문맥 또는 모체(matrix)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철학은 높은 차원의 감성적 경험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것, 그리고 인식 그 자체의 최초의 작용에 의해서 더욱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합리적 경험 속에 다 복원시키게 된다”(PR 15). 그는 “철학의 목적이 순수한 개시(disclosure)에 있다”(MT 49)고 보았다. “철학은 보편적인 개념들을 제공

13) MT는 *Modes of Thought*(New York: The Free Press, 1968)의 약칭.

함으로써 자연의 모태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채로 있는, 무한히 다양한 특수한 사례들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PR 17). 그러나 존재의 집요한 특수성은 합리적 해명을 거부한다. 여기서 그의 철학은 비합리주의와 적극적으로 타협한다. 그 결과 그의 체계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존재의 특수성, 비합리성은 합리주의적 전통의 모든 체계에 저항하고 화이트헤드 자신의 체계마저 개방구도로 몰고 가고 있는 요인이다. 해체적 요인, 비합리적 요인은 화이트헤드의 구성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구성 속에서 구성과 함께 살아 숨쉬면서 한편으로는 구성에 생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성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구성적 합리주의자인 동시에 해체적 비합리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Cobb, J., "Alfred North Whitehead, D. R. Griffin," *et al.*, *Founders of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lbany: SUNY Press, 1993), pp.165-95.
- Derrida, J.,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Griffin, D. R., *et al.*, *Founders of Constructive Postmodern Philosophy*, (Albany: SUNY Press), 1993. viii.
- Garland, W. J., "The Ultimacy of Creativity" in *Explorations in Whitehead's Philosophy*, eds. Lewis S. Ford and G. L. Kline(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3), pp.212-238.
- Pedraja, L. G. "Whitehead, Deconstruction, and Postmodernism," *Process Studies*, Vol. 28(1999), pp.68-84.
-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1929,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A.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_\_\_\_\_, *Adventure of Idea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3.
- \_\_\_\_\_,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Wilcox, J. R., "A Monistic Interpretation of Whitehead's Creativity", *Process Studies*, Vol. 28(1990), pp.162-174.